

수신: 자동차 기자
배포일자: 2021년 4월 19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 본 보도자료의 엠바고는 4/19(월) 12:00 입니다.

제네시스, 2021 상하이 모터쇼 참가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 제네시스 G80 기반의 첫번째 전기차 모델로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 기준 제시
 - ... 87.2kWh 배터리 탑재로 1 회 충전 시 자체 측정 기준 최대 427km 주행
 - ... 전·후륜 개별 모터 탑재한 사륜 구동 방식, 합산 최대 출력 272kW
 - ... 400/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V2L 등 전기차 전용 신기술 적용
 - ... 능동형 소음 제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뛰어난 정숙성· 승차감 확보
 - ... 전기차 전용 그릴· 휠 적용하고 실내에는 친환경 소재 반영
- 브랜드 진출 선포 이후 G80 와 GV80 전시해 중국 시장 적극 공략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첫번째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19 일(현지시각) 상하이 컨벤션 센터(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21 상하이 국제모터쇼(2021 Shanghai International Automobile Industry Exhibition)'에서 브랜드 첫번째 전기차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본격적인 전동화의 시작을 알렸다.

아울러 제네시스의 대표 세단 G80 와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 를 함께 전시하며 이달 초 브랜드를 공식 출범한 중국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제네시스는 한국시간 19 일 오전 11 시 40 분부터 글로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G80 전동화 모델의 첫 공개 행사를 중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장재훈 사장의 글로벌 전략 소개 영상, G8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행사, 제네시스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의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카 설명 영상, 제네시스 중국 법인장 마커스 헨네의 중국 시장 전략 등이 소개됐다.

제네시스 브랜드 장재훈 사장은 영상에서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전기차를 소개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역동적인 우아함을 보여주는 G80 의 전기차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EV 시장에서의 여정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네시스 첫번째 EV, G8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이날 공개된 G80 전동화 모델은 제네시스의 첫번째 전기차 모델이자 고급 대형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이다.

G80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 기반 G80의 파생 모델로 고급 편의사양은 물론 뛰어난 동력성과 전용 전기차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각종 신기술을 대거 적용,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모델에 87.2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427km이며,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2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한 당사 연구소 결과이며 차량 출시 전 국가별 인증 후 추후 공지 예정)

G80 전동화 모델은 AWD(사륵 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된다. 최대 출력 136kW, 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륵과 후륵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272kW(약 370PS),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km까지 4.9초만에 도달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스포츠 모드 기준, 당사 연구소 측정 결과)

아울러 모터와 구동축을 주행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DAS, Disconnecter Actuator System)을 탑재해 2WD와 AWD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동력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복합전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 4.3km/kWh다. (당사 연구소 측정 기준, 차량 출시 전 국가별로 인증 후 추후 공지 예정)

G80 전동화 모델은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시스템이 적용됐다.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은 차량의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 일반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400V 전압을 차량 시스템에 최적화된 800V로 승압해 안정적인 충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PRESS RELEASE

4

이를 통해 고객은 별도의 컨버터 없이 800V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400V의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G80 전동화 모델에는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¹ 기능이 적용돼 고객들에게 새로운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V2L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3.6kW의 소비전력을 제공,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태양광을 이용해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도 적용됐다.

G80 전동화 모델은 솔라루프를 통해 하루 평균 730Wh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1,150km의 추가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1일 평균 일조시간 5.8시간² 기준 당사 연구소 산출 값, 19인치 타이어 기준)

정숙한 실내와 부드러운 승차감도 G80 전동화 모델의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고 수준의 정숙성 확보를 위해 능동형 소음 제어

¹ V2L(Vehicle to Load) :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V2G(Vehicle to Grid)의 개념 중 하나로 야외에서 캠핑을 하거나 비상시 차량의 전력으로 전자제품 등을 사용하고 다른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칭한다.

² 기상청 및 통계청에 공식 등록된 최근 10년간 평균 일조시간 및 일사량 기준으로 평균값 산출

기술인 ANC-R(Active Noise Control-Road)을 G80 전동화 모델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실내 곳곳에 설치한 4개의 센서와 6개의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면소음을 측정·분석함과 동시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 고객이 느끼는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아울러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노면정보를 미리 인지해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G80 전동화 모델은 이와 같은 상품성에 더해 기존 G80의 우아하고 역동적인 외관과 여백의 미를 강조한 여유롭고 균형 잡힌 실내를 계승하면서 고급 EV 세단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더했다.

전면부 그릴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G-Matrix 패턴으로 제네시스 고유의 전기차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릴 상단에 위치한 충전구는 닫았을 때 충전구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릴의 일부처럼 보인다. 충전구 안쪽에는 ‘두 줄’의 크롬 장식을 적용해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성을 부여했다.

측면부는 공력성능을 고려해 터빈(turbine) 형상의 신규 19인치 전용 휠을 적용했다. 후면부는 배기구를 없애고 공력성능을 고려한 범퍼를 배치했다.

제네시스는 G80 전동화 모델 전용 외장 색상 ‘마티라 블루’와 내장 색상 ‘다크 그린 투톤’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천연염료를 사용한 가죽을 시트와 콘솔, 2열 암레스트에 적용하고 ▲가구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나무 조각을 재활용해 만든 전기차 전용 친환경 원목 장식 ‘포지드 우드(forged wood)’ 가니쉬(장식)와 ▲재활용 PET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친환경 원단을 실내 곳곳에 활용해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함으로써 제네시스만의 지속가능성을 담았다.

■ GV80, G80를 시작으로 다양한 고객 접점 통해 중국 시장 적극 공략

제네시스는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약 1,800㎡ 규모의 전시공간에 G80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엑스 콘셉트카와 함께 대표 고급 세단 G80 2대,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 4대 등 총 8대(일반공개일 기준)를 전시했다.

제네시스 중국 마커스 헨네 법인장은 “G80 전기차 모델의 세계 첫 공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제네시스는 대표 모델인 G80와 GV80를 중심으로 중국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중국 고객을 위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상하이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진행된 ‘제네시스 브랜드 나이트(Genesis Brand Night)’에서 브랜드 론칭을 알렸다.

이어 열린 ‘상하이 패션위크’와 협업을 통해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을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장했다.

PRESS RELEASE

7

또한 지난 8일 상하이에 중국 내 첫번째 제네시스 브랜드 체험공간 ‘제네시스 스튜디오 상하이’를 개관했으며, 내달 중 청두에 두번째 브랜드 체험 공간을 마련해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설명>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첫번째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제네시스 2021 상하이 국제 모터쇼 참가내역

모터쇼명	2021 제 19 회 상하이 국제 모터쇼 (The 19th Shanghai International Automobile Industry Exhibition)	
일정 (현지 시간)	전체일정	2021 년 4 월 19 일(월) ~ 4 월 28 일(수)
	언론공개일	2021 년 4 월 19 일(월) ~ 20(화)
	일반공개일	2021 년 4 월 21 일(수) ~ 4 월 28 일(수)
언론공개 행사	2021 년 4 월 19 일(월) 10:40AM ~ 11:00AM (한국 시간: 4 월 19 일(월) 11:40AM ~ 12:00PM)	
전시 장소	상하이 컨벤션 센터(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 제네시스 전시장: 6.2 관	
부스 면적	1,800 m ²	
전시 차종	신차, 콘셉트카, 양산차 등 총 8 대 전시 (※ 일반공개일 기준)	
전시차	신차(1 대)	G80 전동화 모델
	콘셉트카(1 대)	제네시스 엑스 (1 대)
	양산차(6 대)	승용: G80(2 대) RV: GV80(4 대)
특이사항	-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참여하는 중국 모터쇼 - G8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Genesis X 아시아 최초 공개, 제네시스 중국 판매전략 소개	